

後置詞의 統辭論的 考察

李 承 旭 (檀國大學)

所謂 助詞의 文法的 處理를 試圖하기 爲하여, 筆者는 前에 後置詞(postposition)의 品詞 設定을 提議한 적이 있었다.[註1] 이제 그것을 補完하면서, 特히 後置詞가 들어서는 統辭論的인 機能을 中心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後置詞의 形態論的인 記述은 于先 不變語(uninflected word, particle)[註2] 라는 點에 意見을 같이 한다. 이 不變語는 統辭論的인 構成이 單語, 語節, 文等에 後置된다는 極히 制限된 特性을 前提로 하고 있다. 다른 單語가 最小의 自立形式(Free form)인데 反하여 이들 後置詞가 될 單語는 그렇지 못하니, 그렇다고 單純한 依存形式(Bound form)으로 記述할 形態素도 勿論아니다. 그 理由로는 i) 音韻論的으로 條件되는 異形態(Allomorph)를 갖지 않는다. ii) 이 單語의 前後에 休止(Pause)를 가질 수 있다. iii) 語尾 或은 接尾辭의 大部分은 統合하는 말을 支配함에 대하여, 이들은 先行하는 말을 意味的으로 支配한다. 等 몇 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 이와같은 性質을 勘案하여 不變語 後置詞의 形態論的 記述은 半自立形式(Semi-free form)[註3] 이라 함이 옳을 듯 하다.

後置詞의 統辭論的 機能은 그自體만으로 完結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 先語와 關係하여 成分構成의 直接的인 材料가 된다. 即 後置詞節(Postpositional phrase)을 [註4] 形成시켜 副詞節에 準한 關係에 놓인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後置詞節은 副詞를 語源的으로 分類했을 때의 派生副詞(Derivative adverb)[註5] 를 달든 一種으로 다를 만도 하다.

한편 後置詞는 文脈(Context)이나 統辭論的 構成에서 體言에 準한 形態範疇로도 記述된다. 結局 이것은 後置詞가 副詞와 體言의 模糊性을 內包하고 있는 證據인 것이다. 이리하여 後置詞의 統辭論的 特徵은 다음과 같은 最小의 構成으로 集約되는 상싶다.

- (1) 國語의 Postposition 에 對하여 —그의 品詞定立에 對한 試考— 一石李熙昇先生 頌壽記念論叢, 1957
- (2) 「不變語」란 術語가 純粹한 品詞論的인 것은 勿論 아니지만, Jespersen 이 英語文法의 品詞分類에서 쓴 "Particles"와 類義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De Smedt 나 A. Mostaert 는 蒙古語의 品詞分類를 "noun, verb, particle"의 세가지로 하고 있다.
- (3) 語文學研究會編: 國語學概論, 1965 p. 121 에서 安秉禧教授도 「半獨立, 半拘束形式」이라 規定했다.
- (4) Frederick Holden Back: Comparative study of postposition Mongolian dialects and written language, Cambridge, 1955. p. 59 參照
- (5) ibid, p. 62 參照

〔一〕體完的인 統辭 :

1) 先行하는 體言을 支配하는 構成. 卽 「S+P」[註6]로서 다음과 같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i) S+P(사람만, 우리마저), ii)S+C+P(學校에 까지), iii)S+P+P(사람마저도), iv)S+P-P-P(나하고 만도) 이와 같은 構成에서 結果될 수 있는 것은 體言에 後置됨이 原則[i과 같은 경우]이되, 副詞 或은 副詞節에 後置[ii,iii, iv의 경우]될 수도 있는 點이다.

2) 뒤의 格을 支配하는 構成 : 限定된 曲用接尾辭를 後行시키는 다음의 類型이 있다. i)S+P+C(學校까지의), ii)S+P+C+C, (사람만에의), iii)S+C+P+C(學校로부터의), iv)S+P+P+C(사람만으로서의), v)A+P+C(빨리만을), vi)A+P+P+C(빨리만으로서가)

〔二〕副詞的인 統辭

1) 先行하는 副詞를 支配하는 構成 : i) A+P(잘만), ii)A+P+P(빨리나마도), iii)A+P+P+P(빨리만으로는), iv)A+P+C(빨리 뿐이), v)A+P+P+C(빨리뿐만이). 結局「A+P」는 「S+P」或은 「S+C」로써 構成된 語節에 後置詞가 다시 連結되는 類型과 同一視이 되며, 「A+P」가 體言의 性質을 띠고 다시 「A+P」+C」로 構成되는 特記할 만한 일이다.

2) 先行하는 格을 支配하는 構成 : i)S+C+P(學校에 까지), ii)S+C+P+C(學校로부터의). 여기에서는 顯著한 特性으로 指摘될 만한 것은 없으며, 「S+C」는 結局 副詞形으로서 「S+C+P」는 「A+P」와 同類의 것으로 說明될 것이다.

다음 後置詞 問題에 있어 看過치 못할 點은, 한 單語는 勿論이려니와 語節 或은 句월 뒤에 後置되어 보다 上位의 成分을 構成하는 일이다. 가령 “삼돌이는 나머지 잡일까지 얼버드리고서 떡이나 휘황한 거리로 나왔지만”에서,

1) 單語에 後置된 경우 : 삼돌이는, 떡이나.

2) 語節에 後置된 경우 : 나머지 잡일까지

3) 句월에 後置된 경우 : 삼돌이는 나머지 잡일까지 얼버드리고서, 떡이나 휘황한 거리로 나왔지만. 이 때에도 「S+P」와 「A+P」로 縮約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의 統辭論的 機能이 거기에 足하지 못하는. 卽 後置詞가 支配하는 限界와 統合語와의 關係에서 固有性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러한 性質은 後置詞를 分類함에 있어 하나의 基準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叙上한 바 既往의 이론 바 助詞를 格接尾辭로 處理하는 일에 隨伴하여 助詞 가운데 一括하여 온 單語들의 一群은 그 統辭論的인 記述이 顯著히 特徵的이기에 하나의 範疇로 處理되어야 할 것이다.

(6) S=體言. P=後置詞. A=副詞. C=格接尾詞.